

아는 사람들끼리만의 친절

며칠 전 서울의 광화문 지하도 입구에서 어떤 캠페인의 전단지를 나누어 줘 본 적이 있다. 출근길의 바쁜 사람들이긴 했지만, 왜들 그렇게 굳은 얼굴들을 하고 있을까? 전단지를 내밀며, 웃는 낯으로 인사를 건네도 그 굳은 얼굴은 펼쳐지질 않는다. 친절하고 상냥한 얼굴은 그 많은 행인들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왜들 그렇게 굳은 표정으로 다닐까? 자기를 해치거나 위협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왜 그렇게 굳고 무덤덤한 표정을 짓고 다닐까? 전철을 타본 어느 외국인이 “한국인들은 모두들 화난 사람들처럼 서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보일 법도 했다. 분주한 대로를 걸어가면서 행인들과 눈을 마주쳐보라. 그러면 그 굳고 무뚝뚝한 한국인의 얼굴들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Hi”하는 짧은 말로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일본이나 미국 등의 다른 나라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진짜로 항상 그렇게 굳고 무뚝뚝한가? 그렇지 않다. 때에 따라선, 상대에 따라선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굴기도 한다. 이른바 친절과 상냥의 이중성이다. 한국인들은 친절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우리는 아는 사람에겐 친절해야한다고 가르치지만, 모르는 사람에겐 험하게 웃거나 쉽게 아는 체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웃음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오해와 궁금증을 낳는다.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오해와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건가?”하는 궁금증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오해를 살까 두려워서 우리는 다 큰 딸과 아들들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험하게 웃지 말라”고 가르쳤고 당부를 해왔다. 모르는 사람이 웃으며 지나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궁금증에 빠진다. “내 모습 어딘가에 이상한 것이 있는

가?” 또는 “저 사람은 나를 아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다. 모르는 사람에 대한 친절과 상냥은 이렇게 복잡 한 상념을 머릿속에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아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상냥하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모른 체 하는 것이 오히려 없고 궁금증도 유발 시키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친절과 상냥의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살 것인가? 친절과 상냥함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차별적으로 친절하고 상냥하라.”는 것이다. 즉 전 세계의 교양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한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친절하고, 상냥하다. 전 세계의 교양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그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나 험프달(?) 정도로 많이 웃고 친절하고 상냥하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은 설사 이혼한 상대방에게도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군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속도 없다”고 빈정댄다. 친절과 상냥함의 세계적 기준은 아는 사람에게든 모르는 사람에게든 조건 없이 친절하고 상냥 하라는 것인데 우리 한국인의 기준은 아는 사람에게 또는 그럴만한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상냥 하라는 차별적 수준에 아직 머물고 있다.

영어실력의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친절과 상냥함의 세계화도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조건없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태도와 품성을 구비하는 일이 교양 있는 한국인의 형성에 중요하고, 그것이 국가 브랜드 경쟁력의 튼튼한 기반임을 인식할 때가 되었다.

● 문용린 요한 보스코 | 서울대 교수

본당인가서와 초대주임신부로 임명한다는 해밀턴 교구장 토너스 주교님의 공식서한이 왔습니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평화신문에 우리본당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본당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2009년 3월 15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901.00
교 무 금	: \$ \$ 150.00
184(\$50) 무명(\$100)	
감 사 금	: \$ 20.00
226(\$20)	
성전건립	: \$ 20.00
214(\$20)	
소성당 제구	: \$300
246(\$300)	
합 계	: \$1391.00

◆ 성주간 (holy week)◆

성주간은 교회력에 있어 1년 중 가장 의미 깊은 주간이다. 초세기에는 수난의 사건을 기념했기 때문에 '수난주간'(passion week)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그리스도교에 있어 수난에 대한 관념은 항상 부활에 포함하고 있었기에 '빠스카 주간'(paschal week)으로도 알려졌다. 성주간의 각 날에는 고유한 전례가 있는데, 성주간이 시작되는 '예수수난 성지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사실을 기념한다. 이날 미사 중에는 긴 수난복음이 낭독되는데 복음 후에는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를 말하지 않는다.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의 성삼일에는 고유한 전례가 거행된다.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히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쉬는 교우를 위한 기도

저희를 당신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당신 사랑 안에서 친교와 일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초대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신 사랑과 은총에서 멀어진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생활과 기도 속에서 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들이 하루속히 당신 사랑의 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저희가 적극적인 관심과 형제애를 보이게 하소서.

아울러 저희도 당신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당신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고, 저희 삶과 신앙의 모범을 통해 이들이 신앙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소서.

하늘에 오르신 성모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세 번)

본 당 소 식

● 사목회의가 오늘 미사 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안건: 성주간 및 부활절 준비)

● 4월은 워털루 4구역이 안내 담당입니다

1) 2인 1조로 항상 1시간 전에 나옵니다.

2) 미사 및 친교 준비

(친교실 식탁 준비, 게시판 준비, 본당 정리 정돈)

3) 주보 배포 및 새로 온 교우 파악

4) 미사 후 정리 정돈

(친교실 정돈, 본당과 외곽 정리 정돈)

●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긴 겨울이 끝나가고 따사로운 봄이 오고 있습니다. 교육관 정원도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각 구역별로 봉사 활동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교리 공부 안내

매주 주일 미사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문의 : 박재영(바오로) ☎ 519 747 4981

● 2009년 꾸르실리스타 산상 십자가의 길

일시: 2009년 4월 4일 오후 2시 정각
장소: 토론토 소재 Serena Gundy Park
문의: 올뜨레아 간사 (김현태 요셉)

☎ 519 746 8420

● 십자가의 길

주일 오후 4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사순 제5주일(3월29일) 진행- 최우석

Weterloo 4구역장

주님수난성지주일(4월5일) 진행- 오세중

Weterloo 3구역장

각 구역장은 구역별로 행렬참가자(십자가 1명, 촛대 2명)를 미리 선정해 주시고 신자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봉사자 모집합니다.

문의 : 노재현(아킬레오) ☎ 519 342 0351

● 판공성사 안내

3월 31일(화) 예수성심(오후 6시부터)

4월 1일(수) 한맘(오후 6시부터)

4월 2일(목) 해밀턴(오후 6시 30분부터)

4월 3일(금) 런던(오후 6시 30분부터)

매주일(오후 4시~5시) - KW 한인천주교회

● 판공성사관계로 이번 주 평일미사 없습니다.

● 성주간 및 부활절 전례안내

4월 5일(주일) 오후 5시 주님수난성지주일

(성지가지 축성)

4월 6일(월) 오후 7시 30분 성유축성미사

(주교좌성당)

4월 9일(목) 오후 5시 30분 주님만찬성목요일

(세족례, 수난감실 성체조배)

4월 10일(금) 오후 5시 30분 주님수난성금요일

(수난예식, 십자가 경배)

4월 11일(토) 오후 10시 30분 부활성야미사

(초 준비 바랍니다)

4월 12일(주일) 오후 5시 부활대축일 미사

● 대학생회 만남

4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 대학생회 첫 만남
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격려바랍니다. (미사, 식사)

● 로고스회(성경공부) 모임

4월 15일(수) /4월 17일(금) 미사 후

● 사제관, 소성당, 교육관 방문시 안전사고 예방, 이웃 집 잔디 보호를 위해 St. Anthony Daniel Parish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거행(미사)에 있어서 필요한 성물

소성당 제구를 봉헌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거처하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부족한 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헌하실 분은 본당신부님께 말씀하십시오. - 행렬용 십자가, 행렬용 촛대, 종, 성화, 제대 초(기름을 사용하는 초)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 lucasmuse@korea.com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009-15호

2009. 3.29 .

사순 제 5 주일 미사 전례

해설 신계연 차주 해설 박명옥

화답송 (성가 362)

◎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소서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영성체송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성가
입당 (419) 밀알 하나가
봉헌 (518) 선한 사람 아흔 아홉
성체 (504) 우리와 함께 주여
퇴장 (124) 은혜로운 회개의 때

독서
3월 29일 오세중 오미경
4월 5일 신상우 신혜련
4월 12일 김현태 김진선

봉헌
3월 29일 이 민 이활란
4월 5일 오세중 오미경
4월 12일 신상우 신혜련

복사
3월 29일 구하람 노승범
4월 5일 류지흥 강수현
4월 12일 최예슬 호동

친교
3월 29일 영광팀 4월 5일 장미팀
4월 12일 성모회 4월 19일 백합팀